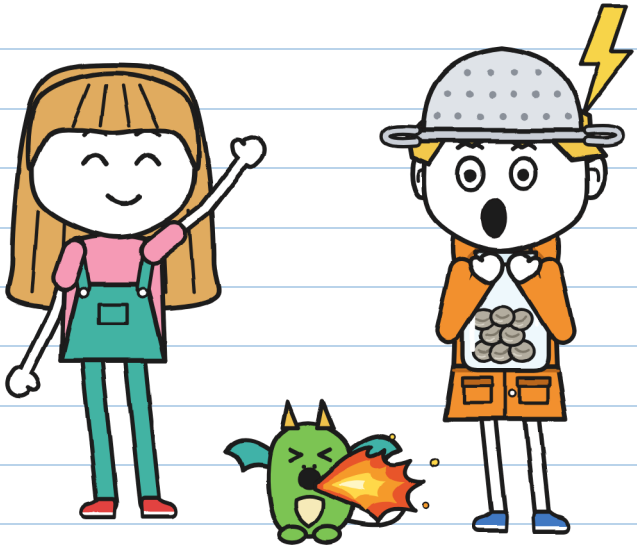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구너의 공책)

사이즈 L
고급 · 11+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L · 고급 · 11+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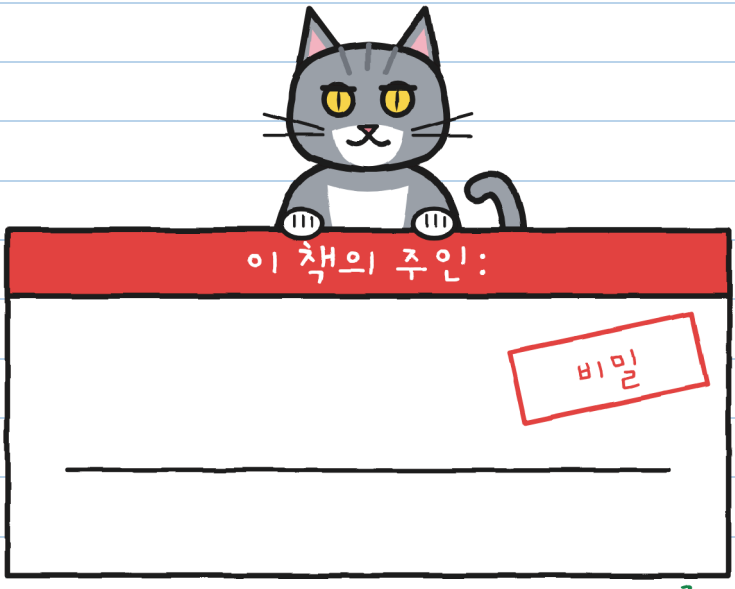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천둥은 없다. —J.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너는 따라 하지 마. 몇 쪽에 걸쳐 이어지면 어디부터와 어디까지라고 적혀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76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폭풍 사냥꾼(그런 셈이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홀리타. 번개와 천둥 사이의 초를 센다.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부스러기. 아기 용. 구니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뭐든.



토요.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플로라 아줌마. 운하길 9번지의 정원사. 돌멩이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네 옆 용의 집에서 용을 돌본다. 부스러기는 아줌마와 함께 산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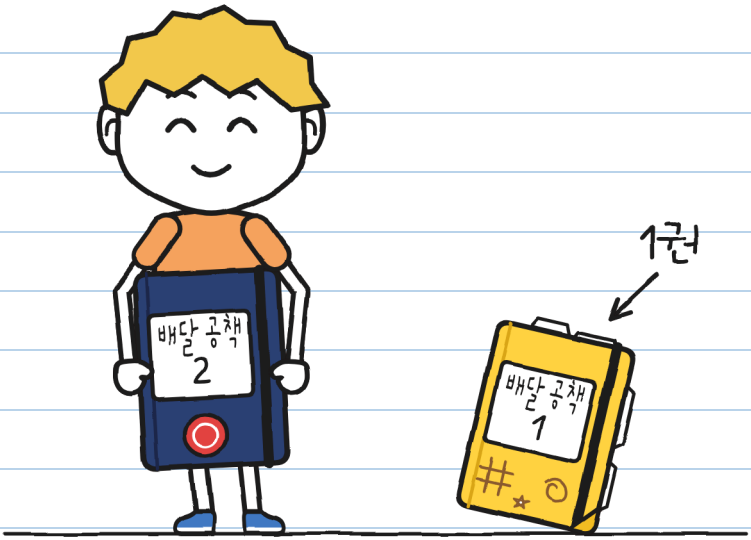


R.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배달 공책 2
주인 : 구니

공식.

공식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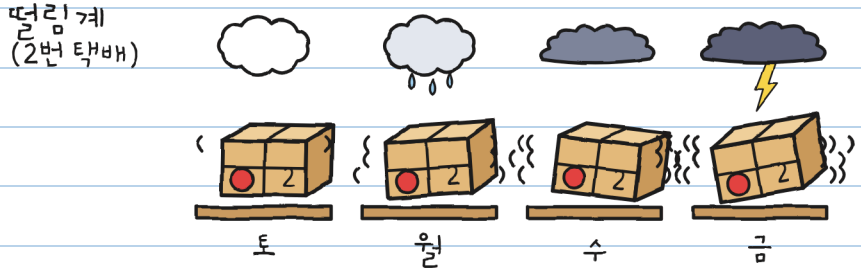
공책 1권은 다 썼다. 꽉 찼다. 이건 가게 주인 마라 아줌마가 줬다. 표지에는 가게 도장이 찍혀 있다. 공식 공책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된다고 한다. 두고 보자.

제1장

폭풍 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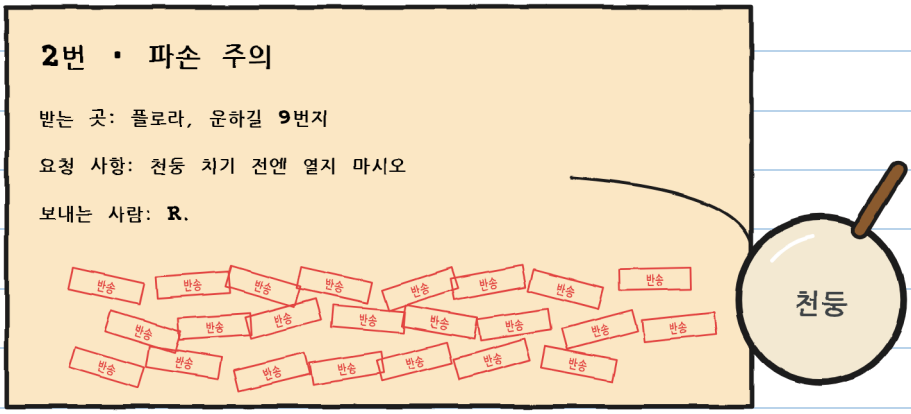
마라아줌마 가게에는 덜덜 떠는 택배가 하나 있다. 지난 토요일부터 그랬는데, 날마다 조금씩 더 심해진다.
나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훌리타와 내가 마지막으로 배달한 택배는 알이었다. 이제 그 알은 부스러기라는 이름의 아기 용이 되어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우리 집 맞은편 가게에는 돌아온 택배가 열아홉 개 남아 있다. 그중 하나는 기다리다 지친 모양이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폭풍이 오니까 떠는 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일기예보를 여섯 번이나 확인했어. —J.

돌아온 택배는 언제나 돌아오는 택배다. 받는 사람이 라벨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휼리타의 초록색 매직펜 같은 것)로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이 택배를 전부 보내는 사람은 똑같다. R.이다.



2번 택배에는 '반송'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었다.

스물셋. 두 번 세어 봤어. —J.

"내가 스물세 번 배달했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 한 건 한 번도 없었어."

토요일 10시, 마라 아줌마는 2번 택배를 두 손에 들고 계산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도 와 있었다. 토요일마다 우리 셋은 가게에서 벌을 받는다. 1번 택배를 허락 없이 배달한 벌이다.

"이건 말이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너희가 배달해. 오늘 오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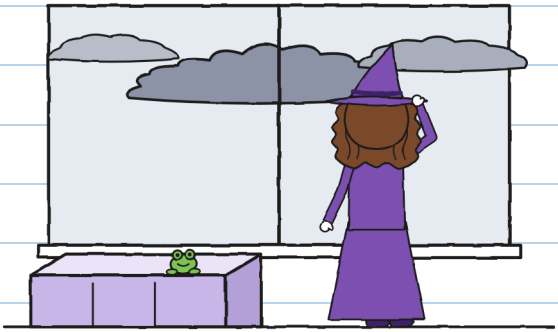


훌리타가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남은 택배 19' 팻말에 닿을 뻔했다.

마라 아줌마는 조건을 세 가지 걸었다.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1. 5시에 출발해, 폭풍이 오기 전에.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플로라 아줌마 집에 있어.
2. 너희 가족은 이미 알고 있어. 플로라 아줌마도 알고.
3. 규칙은 라벨에 쓰인 그대로야. 천둥 치기 전에는 열지 마. 그리고 머리 위에서 치는 천둥이어야 해. 멀리서 치는 천둥은 안 돼.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마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고 진열창 너머로 점점 잿빛이 되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J.

그때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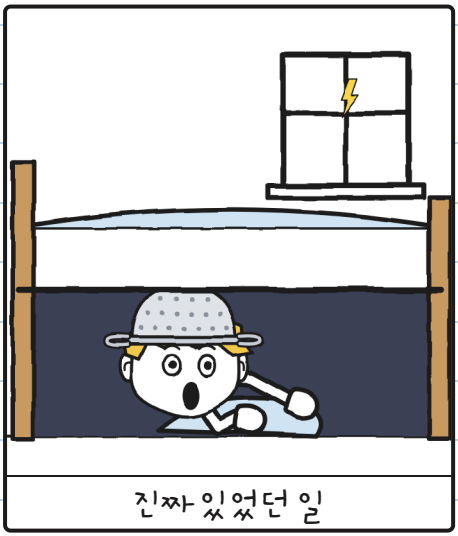
"넌 폭풍 좋아해?"

그래서 누가 그렇게 쳐다볼 때 다들 하는 말을 했다:

"엄청 좋아해. 예전 동네에서는 전문 폭풍 사냥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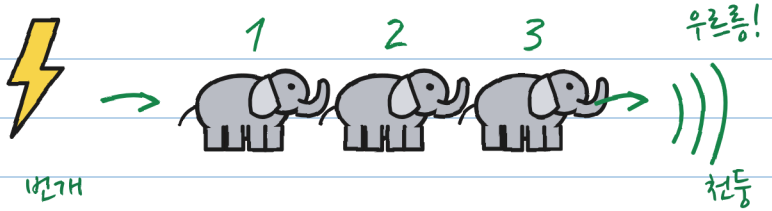
내가 한 말



진짜 있었던 일

침대 밑 전문가. —J.

훌리타가 폭풍을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늘 그렇듯 허락도 없이 내 공책에다: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셋...

코끼리 4마리 = 4초

코끼리 3마리 = 1킬로미터 (대충)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게 라벨에 쓰인 천둥이야.
멀리서 치는 천둥은 택배를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안전한 곳으로!

아는 건 덜 무서워. —J.

나는 아무것도 셀 필요가 없었다. 나는 폭풍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 두었다.

토쇼는 내 어깨 너머로 라벨을 읽더니 가방의 작은 글씨를 보여 주었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아직 폭풍은 안 쳤잖아." 훌리타가 짖었다.

토쇼는 작은 글씨를 다시 훑어보았다. '아직'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토쇼도 같이 갔다.



작은 글씨, 큰 핑계. —J.

5시에 나는 비옷을 가지러 우리 집으로 건너갔다.

"주황색 비옷 입어." 우리 엄마가 문가에서 말했다. "정말 갈 거니? 넌 천둥이 칠 때면…"

"엄마, 다녀올게!"

넌 천둥이 칠 때면… '뭐?! —J.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다. 밤이면 배들이 지나가도록 들어 올리는 다리다.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졌다. 다리 한가운데를 지날 때 훌리타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운하와 훌리타는 사이가 안 좋다.



아주 멀리서 하늘이 번쩍했다. 훌리타는 아무 소리도 들리기 전에 코끼리를 세 마리 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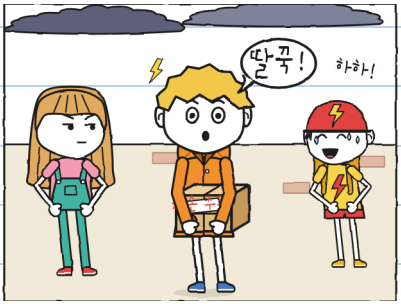
우르릉.

"저 번개는 1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6시에 온댔어."

"천둥이 쳤다!" 토뇨가 말했다. "이제 열어도 돼?"

"저건 택배를 여는 천둥이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라벨에 쓰인 천둥은 번개와 동시에 치는 천둥, 코끼리 0마리야. 하지만 소리가 들리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운하길까지 달렸다. 나는 천둥소리를 하나도 못 들은 척했다.

"방금 딸꾹질이야?" 훌리타가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딸꾹!"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천둥이 칠 때만 그렇다. 천둥이 칠 때마다 딸꾹질이 줄줄이 터진다. 3초에 한 번씩. 폭풍이 머리 위에 있으면 멈추지 않는다. 무서운 게 아니다. 내 몸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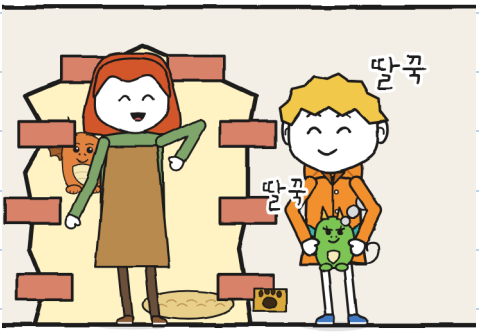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베라 아줌마는 플로라 아줌마네 바로 옆 용의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부스러기는 나와 함께 산책한다.

"플로라네 집까지만이야. 부스러기에겐 첫 폭풍이거든."

베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며 부스러기를 내 품에 안겨 주었다. "부스러기는 구니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해. 네가 느끼는 것도. 무서워하면 잡아당기지 마. 꽉 붙잡으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담장을 세 번 두드려. 그러면 데리러 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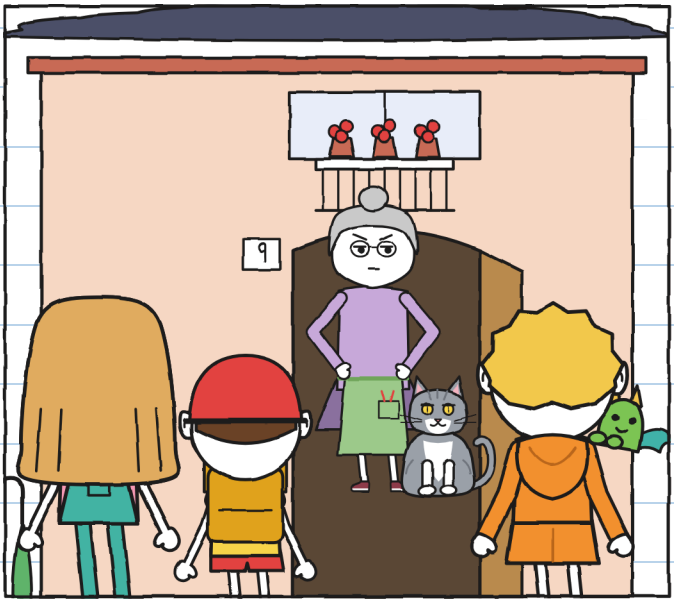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폭풍이 엄청 좋거든요."



멀리서 천둥이 쳤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는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났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렴."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지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용의 집 문을 찾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발코니가 있는 집이다. 그 문은 벽처럼 생겼다.



플로라 아줌마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상자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부스러기를 보았다.

"베라네 아기 용이구나. 내 고사리를 그슬리지 않게 해 다오." 아줌마가 말했다. "들어오렴, 비가 온단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두는데,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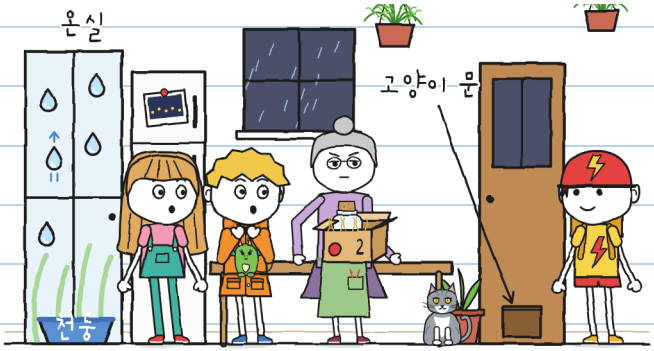
제2장

천둥!

플로라 아줌마네 부엌은 식물로 가득하다. 식탁에도, 바닥에도, 천장에도. 안쪽 유리문은 온실로, 고양이 문이 달린 뒤쪽 문은 마당으로 이어진다. 토요는 비 때문에 자전거를 복도에 들여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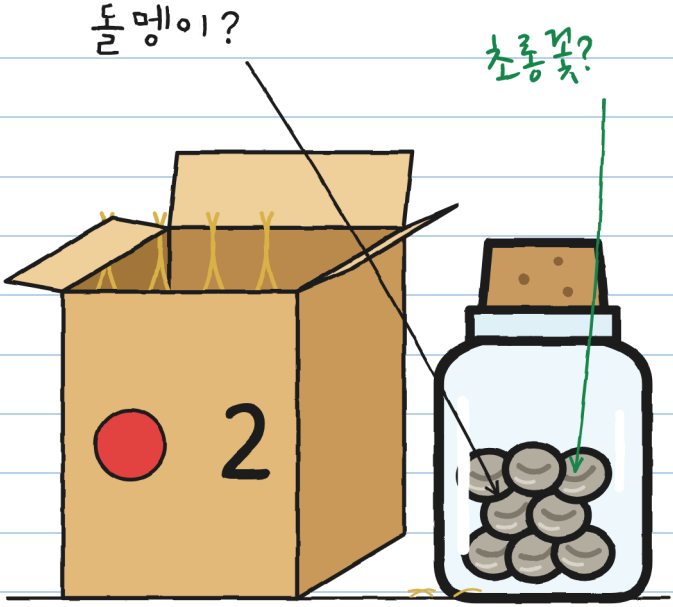
온실 유리에는 빗방울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가 창틀까지 올라가자 다음 빗방울이 앞질렀다.

"R.이 만든 마법 유리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내가 원할 때만 비가 들어와. 번개는 절대 안 들어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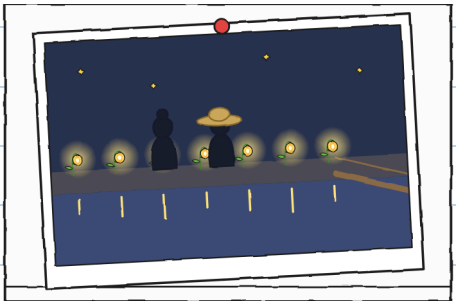
나는 2번 택배 상자를 쳐다보았다. R.도 배달할 줄 아는 게 있나 보다.

플로라 아줌마는 상자를 식탁에 놓고 묻지도 않고 열었다.
안에는 짚 속에 유리병이 하나 있고, 병 속에는 회색
알갱이가 여덟 개 들어 있었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휼리타가 소리쳤다.
"난 상자를 열었지, 병을 연 게 아니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이미 알아. R.이 초롱꽃을
약속해 놓고 돌멩이를 보내는 거지."



"초롱꽃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냉장고에서 낡은 사진을 떼어 냈다.
물가에 작은 불빛이 줄지어 선 밤의 운하 산책로였다.



"번개의 빛을 품은 식물이란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밤이 되면 그 빛을 돌려주지."
"R.이 심었어요?"
"R.은 깨어난 씨앗을 가져왔고, 난 흙을 대줬지. 잠든
씨앗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초롱꽃은요?"
"하나둘 꺼졌어. R.이 오지 않게 됐지. 지금은 이런
걸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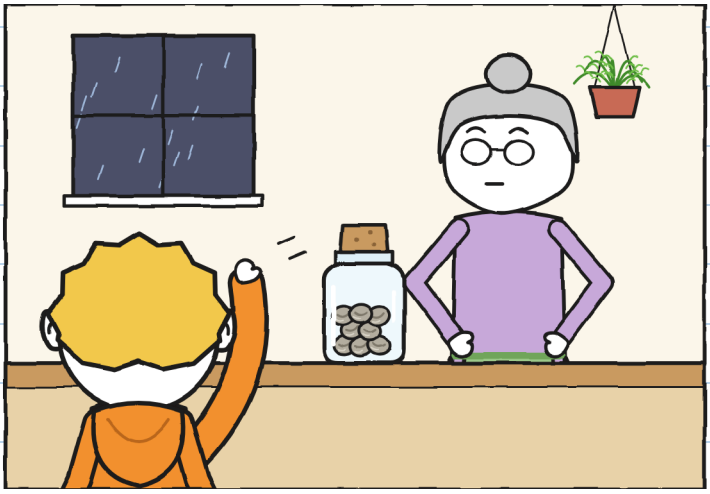
그래서 밤이면 운하가 그렇게 어둡다. 그래서 널빤지 하나
걸친 널다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무서웠지. 난 어둠 속에서 건넜는걸. —J.

"R.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늦게라도 지키지.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야. 이 병이
스물세 번이나왔는데, 스물세 번 다 돌멩이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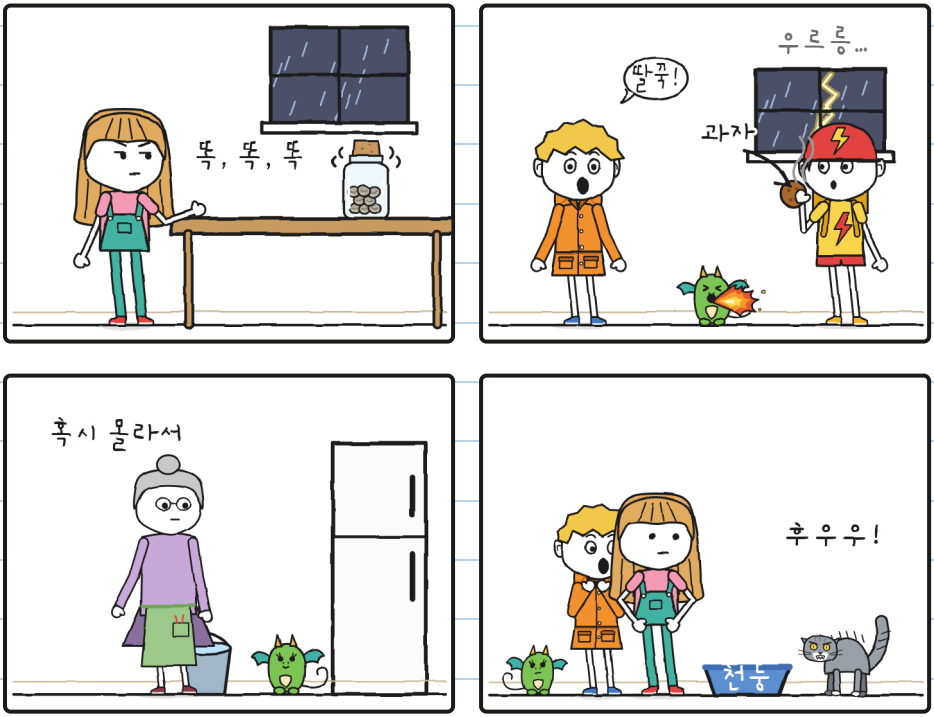
나는 라벨을 떠올렸다. 요청 사항까지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
"천둥이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 본 적은 있어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물이 젖느냐고 물은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난 누구도 안 기다려." 아줌마가 말했다. "천둥이라도."



플로라 아줌마의 고양이 이름은 천둥이다. 밥그릇에 이름이 적혀 있다. 구름처럼 회색이고, 진짜 천둥처럼 그르렁거린다.

폭풍을 기다리는 동안 부엌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둥에서 제일 나쁜 건 기다리는 거야. —J.

병은 식탁 위에서 점점 더 크게 달그락거렸다. 훌리타는 작은 소리로 셌다. '코끼리 열두 마리.' '아홉 마리.' 식탁 밑에서는 훌리타의 발이 다른 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바닥에 구멍 나겠다." 내가 말했다.
"세고 있잖아."
"그럼 네 발한테도 알려 줘. 발이 먼저 가고 있어."
그때 부스러기가 작은 불꽃을 또 내뿜었다. 천둥은 고양이 문으로 쏜살같이 마당으로 달아났다. 플로라 아줌마가 뒷문을 열고 문턱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천둥아아아!"



그리고 훌리타가 병을 열었다.



"천둥이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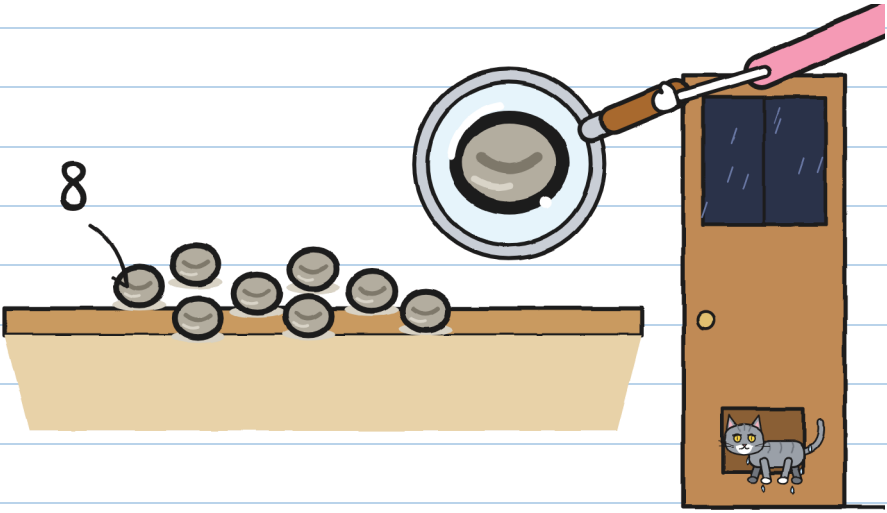
천둥은 치지 않았다. 플로라 아줌마가 소리친 거였다.
천둥은 고양이다.

나는 천둥! 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딱 기다리던 말이었지. 그게
고양이라고는 아무도 말 안 해 줬잖아. —J.

이건 17쪽에 적어 두었다.

그 쪽은 나중에 읽었어. —J.

병을 열자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멎었다. 안에는 차갑고 가만히 있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뿐이었다. 훌리타는 알갱이들을 식탁에 쏟아 돋보기로 들여다보았다.
"줄이 하나씩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감은 눈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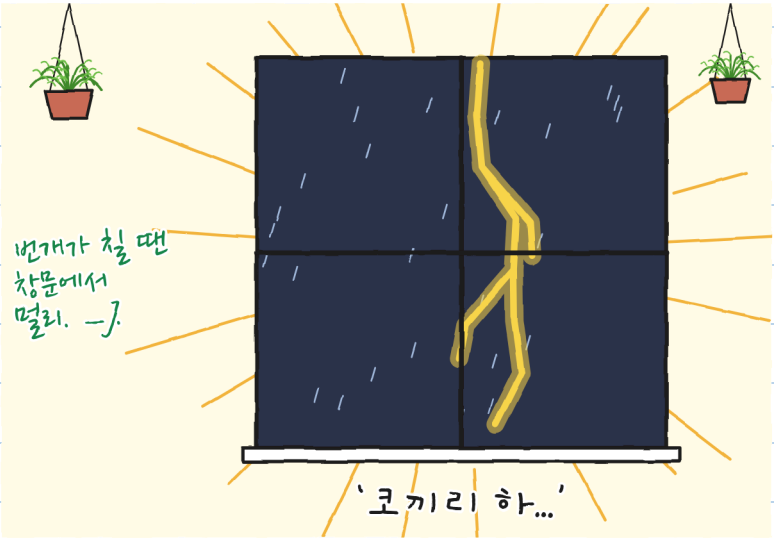
천둥은 혼자 고양이 문으로 흠뻑 젖어 돌아왔고, 플로라 아줌마는 문을 닫았다.
"돌멩이네. 늘 그렇듯이." 아줌마가 말하고 훌리타를 쳐다보았다.

훌리타의 얼굴이 티셔츠와 똑같은 색이 되었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이에요. 그래서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어쩌면 천둥이 깨워 줄지도 몰라요. 유리창이 덜덜 떨릴 만큼 큰 천둥이요."

플로라 아줌마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씨앗이라면 증명해 보라지."

밖은 벌써 거의 밤이었다. 겨우 6시인데도.
번개. 훌리타가 세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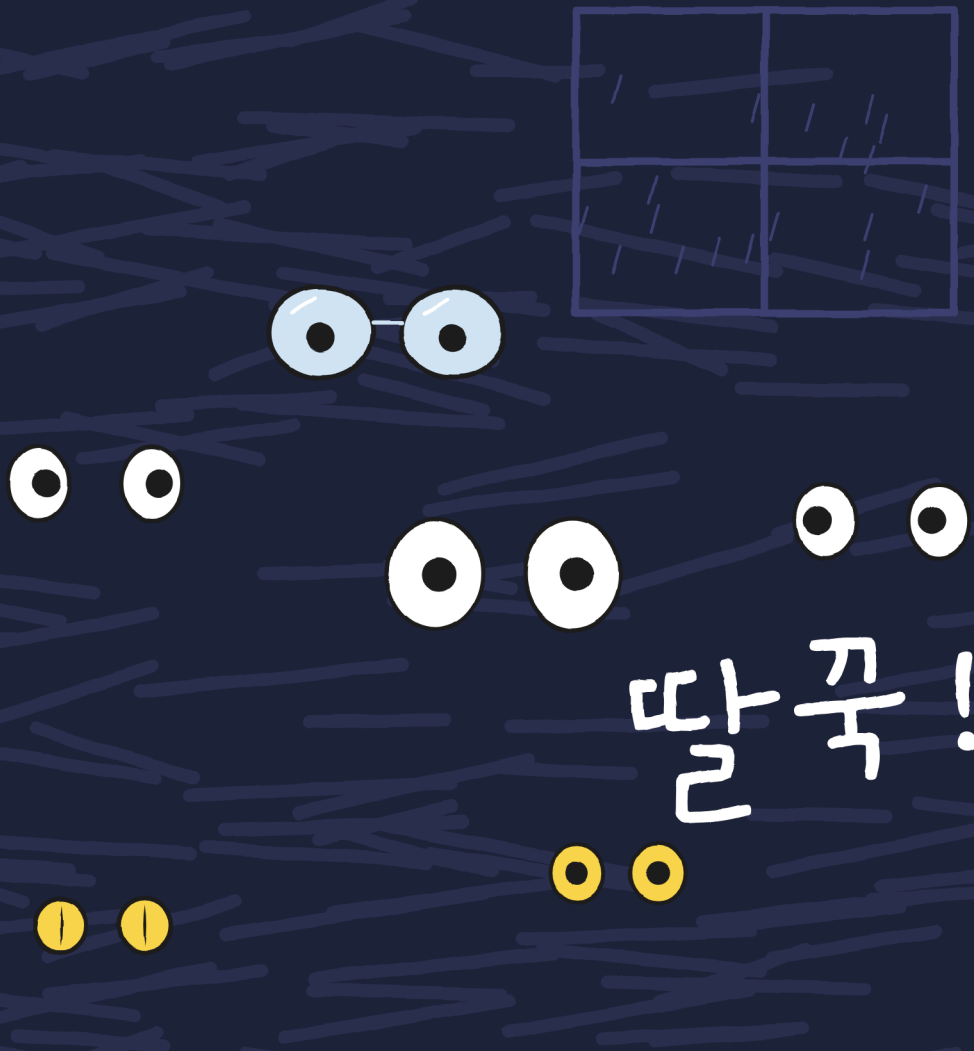


그리고 그때 진짜가 왔다.



천둥이 번개와 동시에 쳤다. 폭풍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식탁과 컵과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불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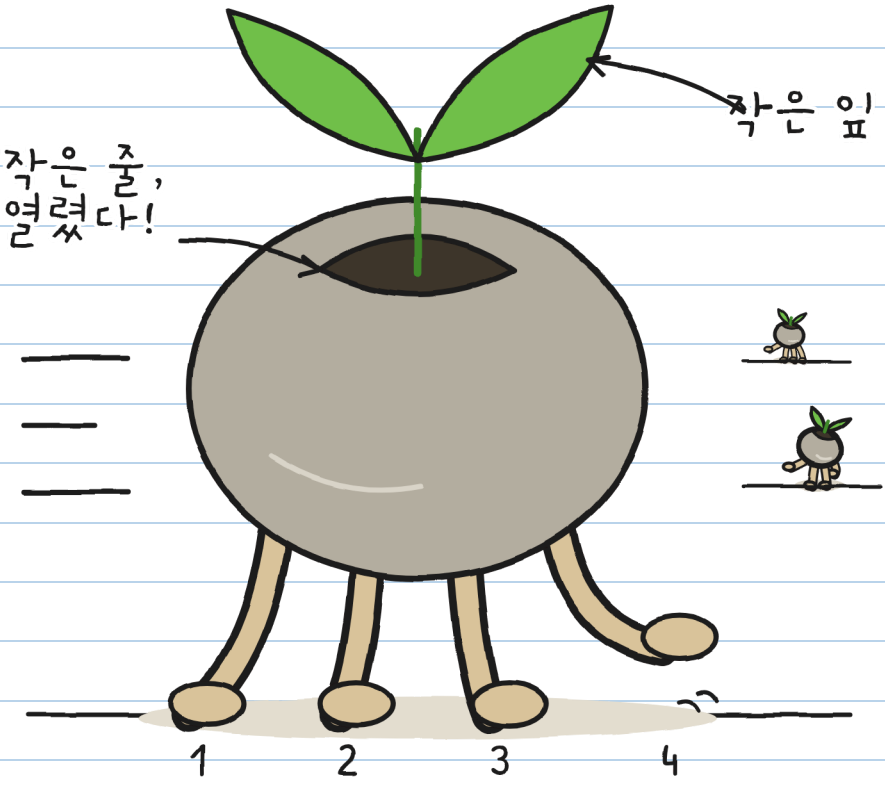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고, 불꽃이 확 뿜어져 나왔다. 1초 동안 부엌이 통째로 환하게 보였다.

식탁이 비어 있었다.



초롱꽃 씨앗
(깨어남)



뿌리 다리 네 개

돌멩이에 다리가 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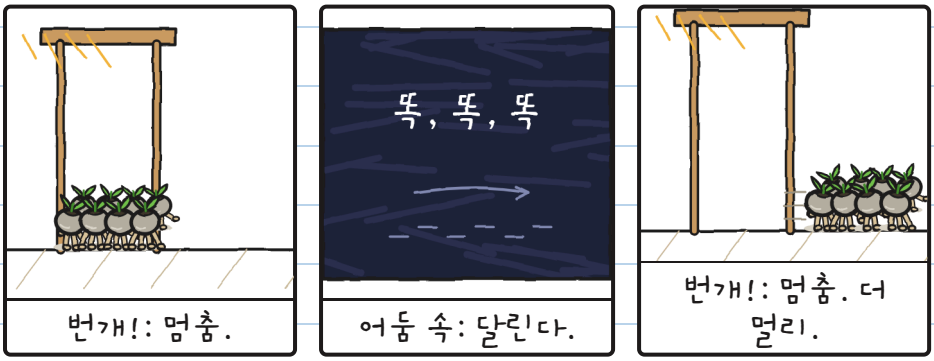
그리고 조급함. —J.

제3장

안 보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빗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다시 번개가 쳤을 때 씨앗들은 더 멀리 가 있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아주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씨앗들은 빨리 달렸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멈췄고, 번개는 아주 많이 쳤다. 나는 식탁 밑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못에 걸려 있던 플로라 아줌마의 체를 머리에 썼다. 우리 집에서는 천둥이 칠 때마다 하나씩 쓰거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야. 씨앗이랑. —J.

플로라 아줌마가 손전등으로 씨앗 하나를 비추었다.
씨앗은 바닥에 딱 붙은 듯 멈췄다. 다른 씨앗을 비추자 첫 번째 씨앗이 틈을 타 도망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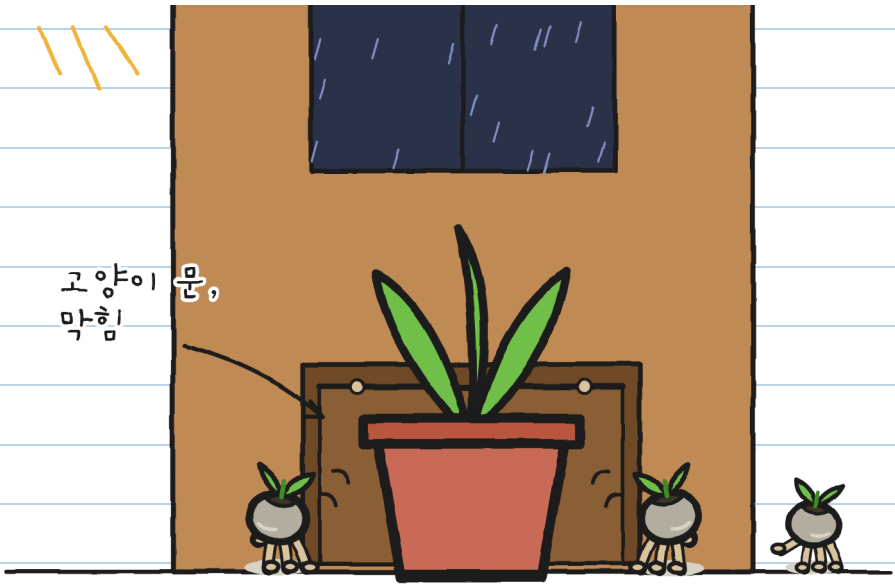
"씨앗이야! 깨어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외쳤다.



플로라 아줌마는 처음으로 부엌에서 뭔가 뛰어다니는 걸 반기는 것 같았다.
"손전등이 하나 더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렴. 이것밖에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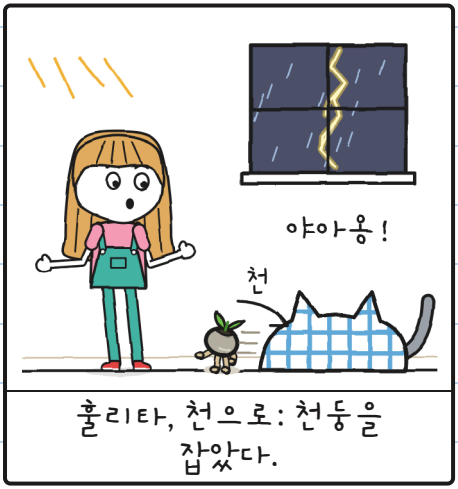
씨앗은 여덟 개인데 손전등은 하나. 두 번째 씨앗도 달아났다.

씨앗은 모두 고양이 문 쪽으로 갔다.
"폭풍에 젖은 흙을 찾는 거야." 플로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화분을 문 앞에 놓았다. "집 안에는 수돗물을 준 흙뿐이야, 온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흙은 쓸모가 없어. 바깥에는 흙이 거의 없지. 판석과 좁은 길과 운하뿐이니까. 나가면 빗물이 물속으로 쓸어 가 버릴 거야."



고양이 문은 막혔다. 하지만 이제 씨앗들은 어둠 속에서 부엌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부엌에는 숨을 곳이 백 군데나 된다.

우리는 온갖 걸 다 해봤다:



휼리타, 천으로: 천둥을 잡았다.



토뇨, 맨손으로: 천둥이 토뇨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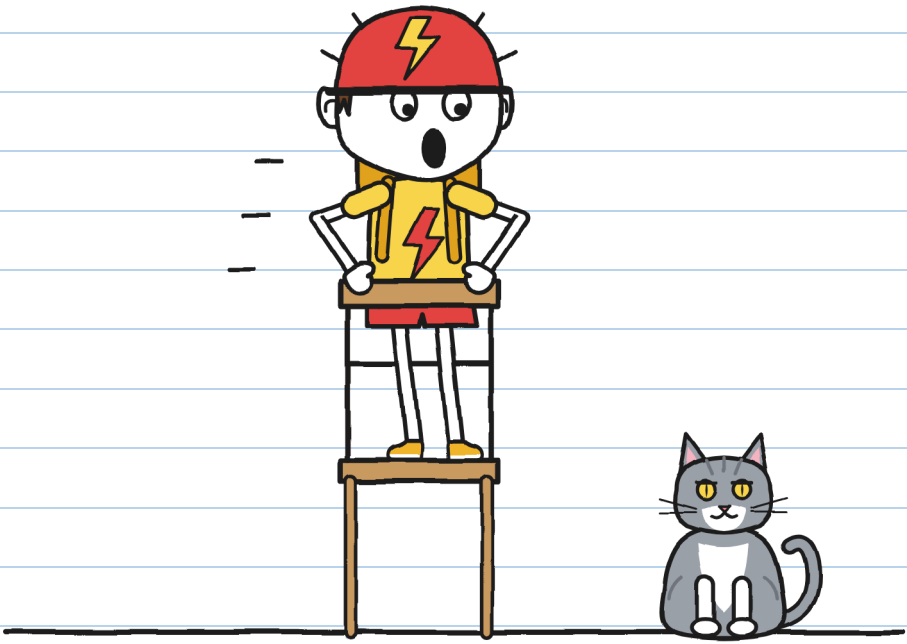
부스러기, 불꽃으로: 하나!



플로라아줌마, 손전등으로: 둘!

천둥도 씨앗을 쫓아다녔다. 천둥은 어둠 속에서도 거의 다 보인다. 우리는 못 보는데.

토쇼는 폭풍이 무섭지 않다. 토쇼가 무서운 건 고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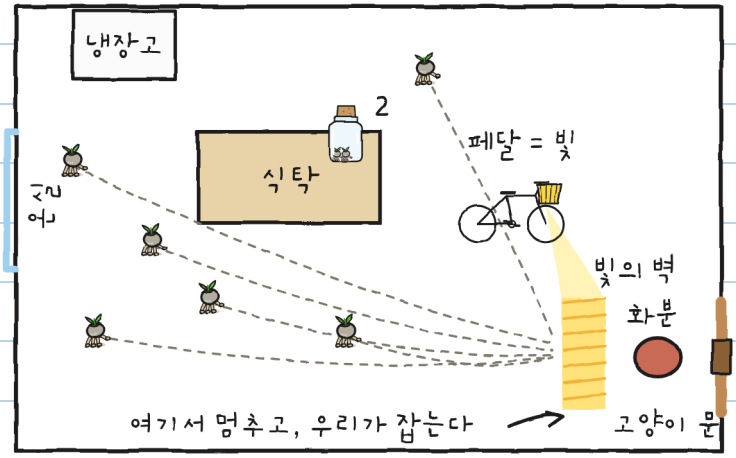
"고양이가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이야!"

"더 나빠!"

무서운 건 둘, 이름은 하나. —J.

나는 여전히 체를 쓴 채 식탁 밑에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바닥이 전부 보였는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씨앗들은 부엌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늘 고양이 문의 화분을 밀러 돌아왔다.

씨앗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약도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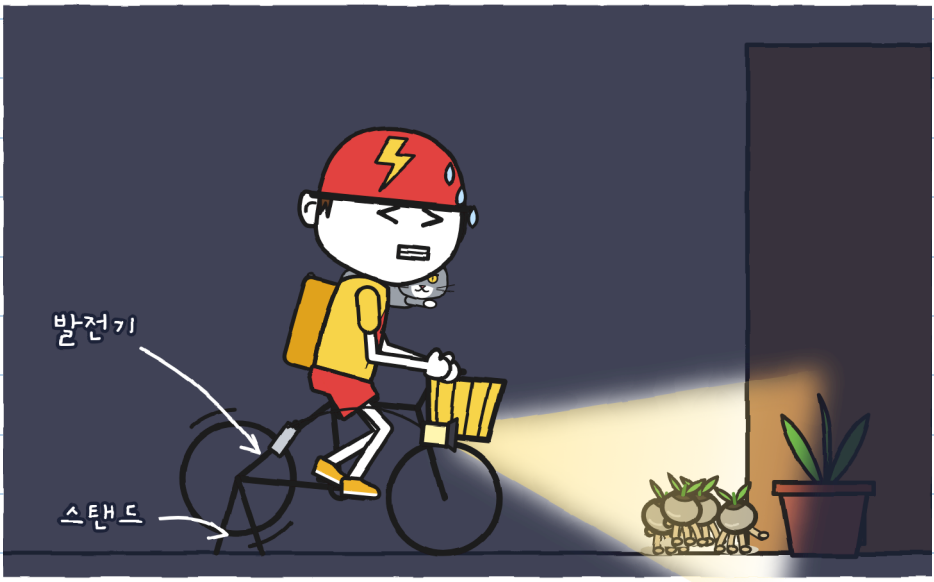
"토요, 네 자전거 전조등은 페달을 밟으면 켜지니?"

"당연하지."

"그럼 오늘은 빛을 배달하는 거야."

우리는 자전거를 스탠드에 세우고 전조등이 고양이 문을 향하게 했다. 번개배송 자전거의 발전기는 뒷바퀴에 붙어 있어서, 바퀴가 돌면 불이 켜진다. 그리고 토뇨가 페달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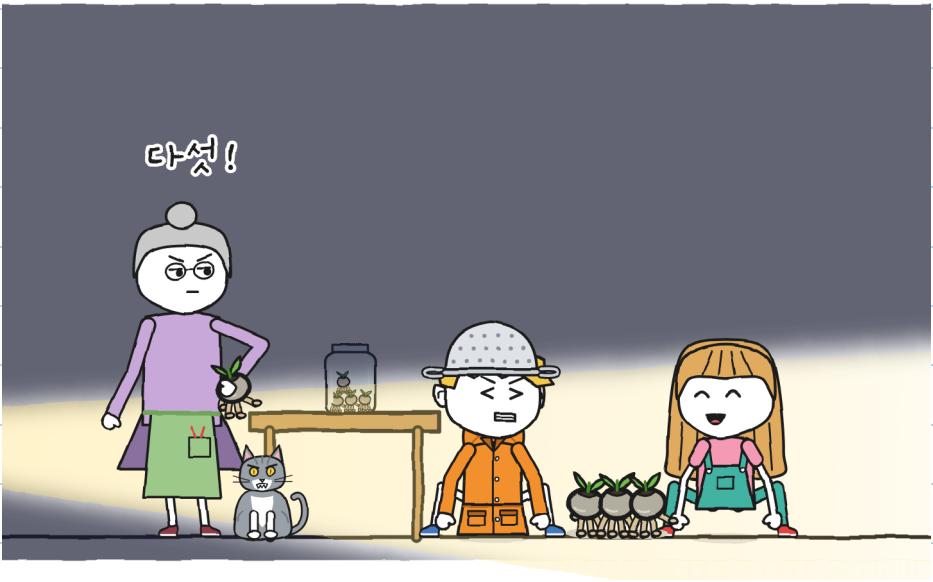
토뇨는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페달을 밟은 적이 없었다. 천둥이 토뇨 위로 뛰어올랐을 때는 더더욱.



드디어 번개배송이 쓸모가 있네. —J.

씨앗들은 빛에 닿으면 들킨 아이처럼 발끝으로 서서 가만히 있었다. 우리는 씨앗을 하나씩 병에 넣었다.
셋. 넷.

천둥도 입으로 씨앗 하나를 물었고, 플로라 아줌마가 손가락 두 개로 그걸 빼앗았다.
"다섯!" 아줌마가 말했다.



여섯.

플로라아줌마는 한 개도 도망가지 못하게 병뚜껑을 닫고 우리를 도우려고 쪼그려 앉았다. 그때 천둥이 식탁으로 뛰어올라 병을 쓰러뜨렸다.



토쇼는 병이 바닥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낚아챘다.
"번개배송." 토쇼가 말했다. "1초 안에 못 하면 공짜."

하지만 페달을 멈춘 탓에 불이 꺼졌다. 그리고 천둥은 아무도 못 말린다. 천둥은 쏜살같이 고양이 문으로 달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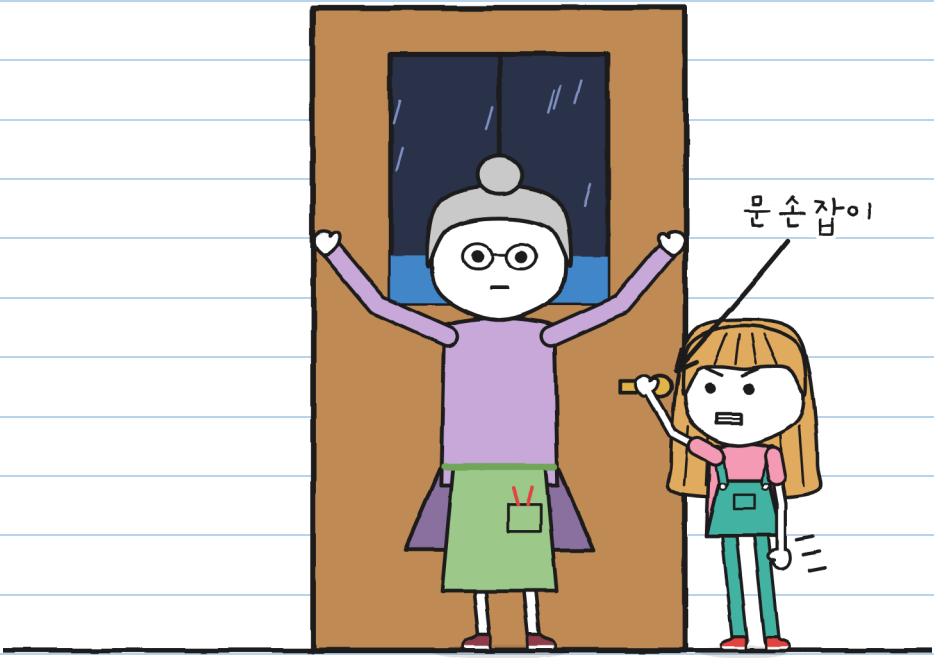
어둠 속에서: 똑, 똑, 똑. 천둥이 화분을 밀었다: 드르륵.
그러자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여덟 번째 씨앗은 고양이 문으로 나가 버렸다.

"내가 찾아올게요!" 훌리타가 벌써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집에서 못 나가." 플로라 아줌마는 문 앞을 막아섰다. 따질 기분이 아니었다.



훌리타는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놓지도 않았다.
잠시 뒤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흠뻑 젖은 천둥이었다. 여덟 번째 씨앗은 없었다.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우르릉.

"둘." 훌리타가 말했다. "아직 아주 가까워."

"그럼 이제 심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폭풍이 가기 전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는데요?" 훌리타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유리 위로 올라가는 빗방울을 확인했다.

"마법은 아직 걸려 있어. 번개는 밖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지."



그러고는 부스러기를 쳐다보며 '어둠 속에서' 하고 되풀이했다.

부스러기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딸꾹질을 했다.

제4장

딸꾹

플로라아줌마는 R.이 가르쳐 준 대로 초롱꽃 심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공식 공책 글씨로 받아 적었다:

초롱꽃 심는 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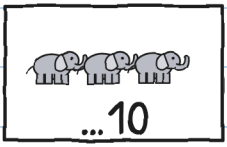
   폭풍에 젖은 흙.
   (수돗물 준 흙은 안 돼.)

2. 

   흙 위에서 병 열기.
   (먼저 열면 도망간다.)

3. 

   전부 어둠 속에서: 씨앗들이 스스로 흙 속으로 들어간다.
   (네가 묻으면 싹이 안 터.)

4. 

   폭풍이 가기 전에:
   코끼리가 열 마리를 넘으면,
   다음 폭풍 때까지 심어지지 않는다.

깨우려면 코끼리 0마리. 심으려면 열 마리까지. 열한 마리가 되면 다시 잠들어. —J.

플로라 아줌마가 천장의 크랭크를 돌렸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유리 위의 그려 놓은 빗방울들이 올라가기를 멈추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진짜 비는 유리가 없는 것처럼 통과해 화단 위로 쏟아졌다.

화단은 흙이 가득한 긴 탁자였다.

"전부 화단으로. 바닥에는 한 방울도 안 돼." 플로라 아줌마가 비에게 명령했다.



이 유리는 이야기 속에만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온실에 절대 가지 마(76쪽). —J.

"폭풍에 젖은 흙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이제 전부 어둠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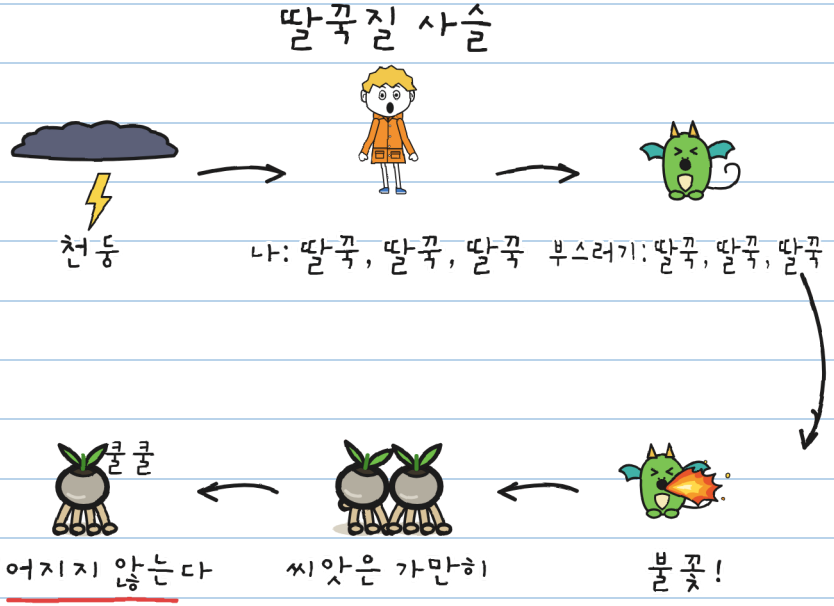
그런데 부스러기는 벌써 안에 들어와 있었다. 문을 열 때 플로라 아줌마의 발 사이로 아무도 모르게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부스러기는 화단 아래 화분들 사이에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조심조심 끌어당겼다. 부스러기는 네 발로 화분을 꽉 붙잡았다. 베라 아줌마가 우리한테 말했던 대로였다.



그리고 내가 부엌에서 딸꾹질을 할 때마다 온실에서는 부스러기가 불을 뿜어 환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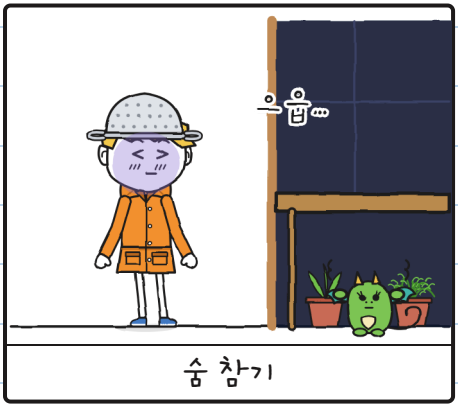
이해하려고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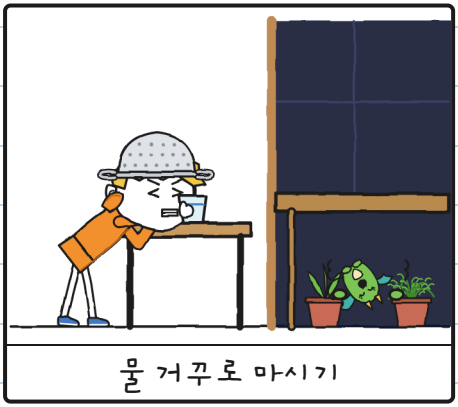
부엌에서는 딸꾹질이 도움이 됐다. 불꽃이 한 번, 씨앗이 가만히, 씨앗이 한 개 잡힌다. 온실에서는 우리를 망쳤다. 3초마다 불꽃이 터지니까 씨앗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어둠이 한 번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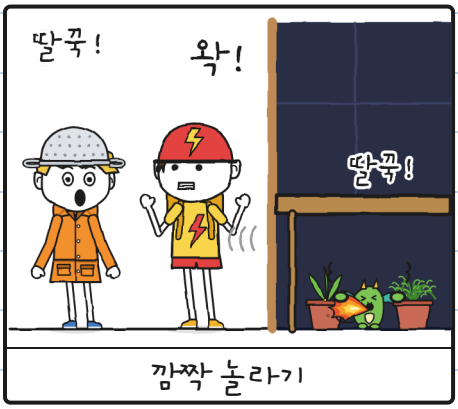
사슬을 끊어야 해. 제일 끊기 쉬운 고리는 너야. 사랑을 담아. —J.

우리는 딸꾹질에 좋다는 방법을 다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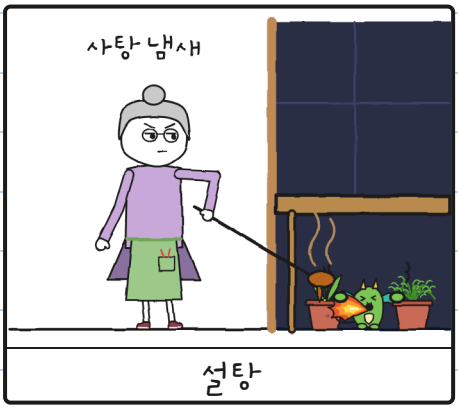


숨 참기


물 거꾸로 마시기



깜짝 놀라기



설탕

부스러기는 화분을 붙잡은 채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전부 따라 했다.

방법: 0개. 딸꾹질: 많이. -J.

"코끼리 넷. 다섯."

천둥이 울렸다. 훌리타가 말하기를 이번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고 했다.

씨앗일곱 개가 병 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나갈 곳을 찾고 있었다. 나는 계속 딸꾹질을 했다.



"열하나까지 세면 어떡해?" 내가 물었다.

훌리타는 유리에 붙은 작은 다리들을 쳐다보았다.

"또 돌멩이가 되겠지."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부스러기는 네 무서움을 따라 하는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다른 걸 따라 해도 되잖아." 내가 말했다.

딸꾹질을 하자 화단 밑에서 불꽃이 확 터졌다. 부스러기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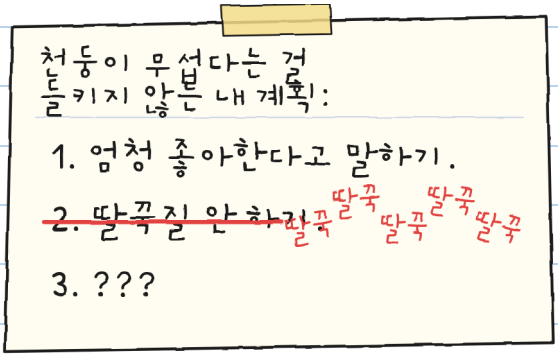
"부엌으로 데려 나오면?" 내가 물었다.

"꽉 붙잡고 안 나와. 봤잖아."

훌리타가 목소리를 낮췄다.

"먼저 네가 곁에 있어 줘."

나한테는 무서움을 없앨 방법이 없었다. 티 나지 않게 하는 계획만 있었는데, 그 계획도 더는 통하지 않았다:



3번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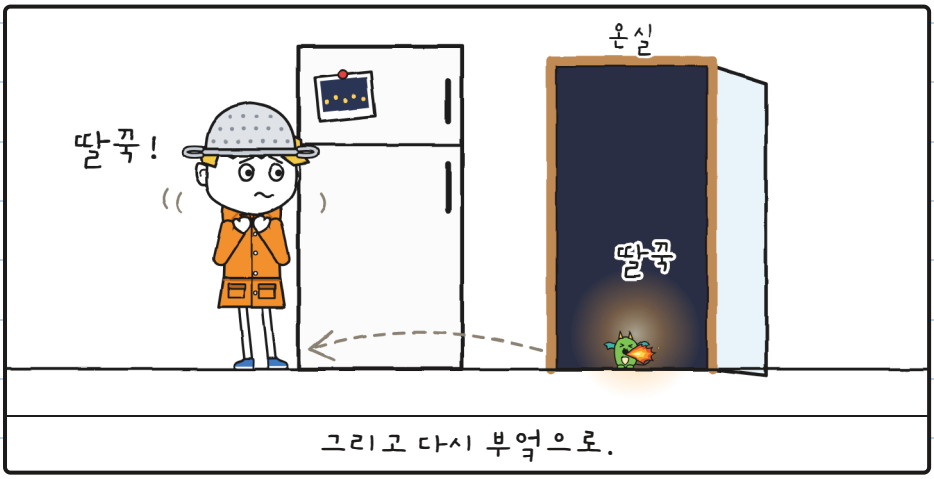
나는 해 보았다. 정말로.



한 발 안으로.



천둥 한 번.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온실은 동네에서 천둥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다.

문가에서 유리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번개와 번개 사이에 지붕 훨씬 위로 그것들이 보였다. 폭풍 속을 날고 있는 베라 아줌마의 용들이었다. 용들은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을 때 날아오른다. 그래서 베라 아줌마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다. 폭풍이 치면 용들을 지켜봐야하니까.



용들은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가자, 사냥꾼." 토쇼가 말했다.

나는 토쇼가 웃기를 기다렸다. 웃지 않았다.

나는 체를 벗어 플로라 아줌마에게 건넸다. 아줌마는 체를 진짜 헬멧처럼 손잡이를 잡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체는 번개를 못 막아. 무서움은 가끔 막아 주지. —J.

안에서는 빗소리가 손가락 천 개가 한꺼번에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네발로 기어 화단 밑으로 들어갔다.
부스러기가 거기 있었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나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우르릉!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불꽃이 우리 둘을 환하게 비췄다.

우리는 화단 밑에 숨은 폭풍 사냥꾼 둘이었다.

그때 문가에서 훌리타가 웃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같이 셀게."

제5장

내가 같이 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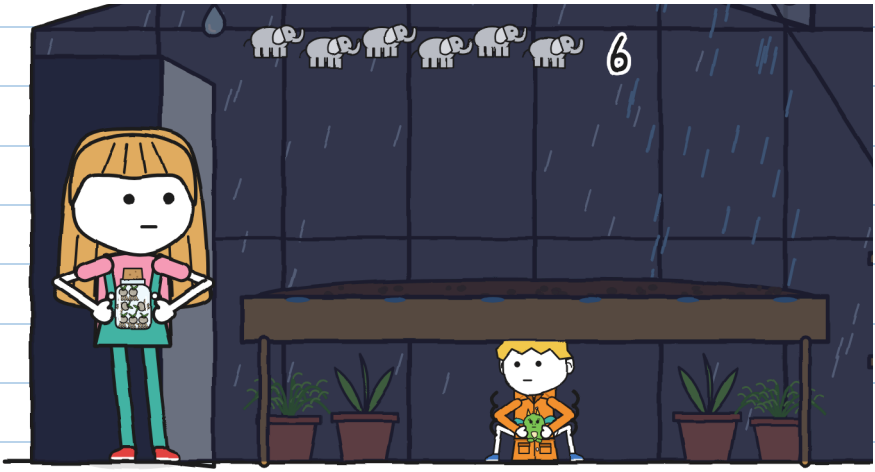
그렇게 우리는 셌다. 훌리타는 문가에서, 나는 화단 밑에서, 부스러기는 내 비옷에 기대어 덜덜 떨면서.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르릉.

"여섯이면 2킬로미터쯤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우리는 계속 안전한 데 있자."



코끼리 여섯 마리를 다 셌는데도 무서움은 그대로 내 곁에 있었다.

폭풍이 엄청 좋다고 두 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부스러기는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따라 하는 거였다.
부스러기가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핑계를 찾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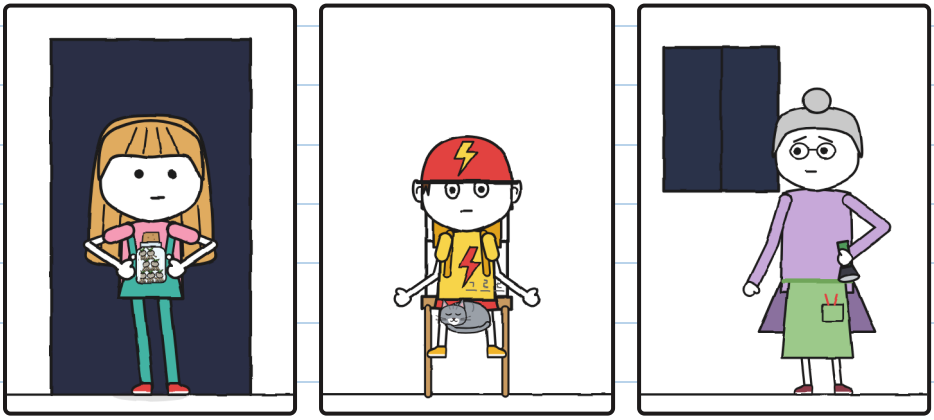


"난 천둥이 무서워."

"알고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6쪽에 그려 놨잖아. 네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난 고양이가 무서워." 토뇨가 말했다. 토뇨의 무릎에는 천둥이 잠들어 있었고, 토뇨는 움직일 엄두를 못 냈다.

"난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게 무섭단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래서 지난번들에는 병이 도착하자마자 열어 버렸지."



난 널다리가 무서워. 그건 다들 알잖아. —J.

아무도 웃지 않았다. 비는 똑같이 내렸지만 나는 화단 밑에서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부스러기도 천천히 숨을 쉬었다.



번개. 우리는 같이 아홉까지 셌다. 우르릉.

그리고 나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그 천둥에도, 다음 천둥에도.

"지금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속삭였다.

훌리타는 어둠 속에서 발끝으로 걸어 들어가 젖은 흙 위에 병을 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문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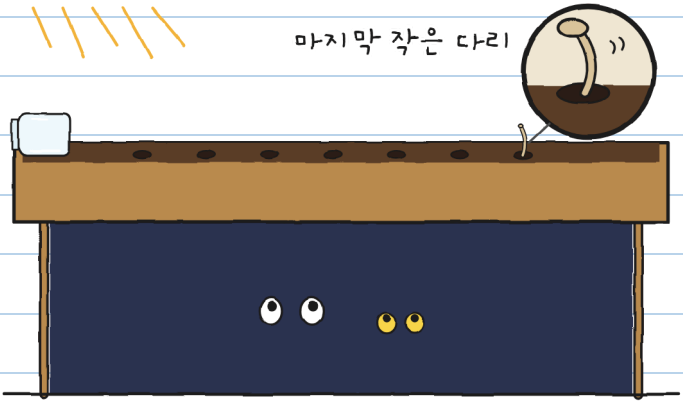


똑, 똑, 똑. 어둠 속에서 병 밖으로 뭔가 나오고 있었다.

아주 멀리서 번개. 우리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코끼리 열 마리까지 셌다. 우르릉.

열. 마지막으로 셀 수 있는 수.

다음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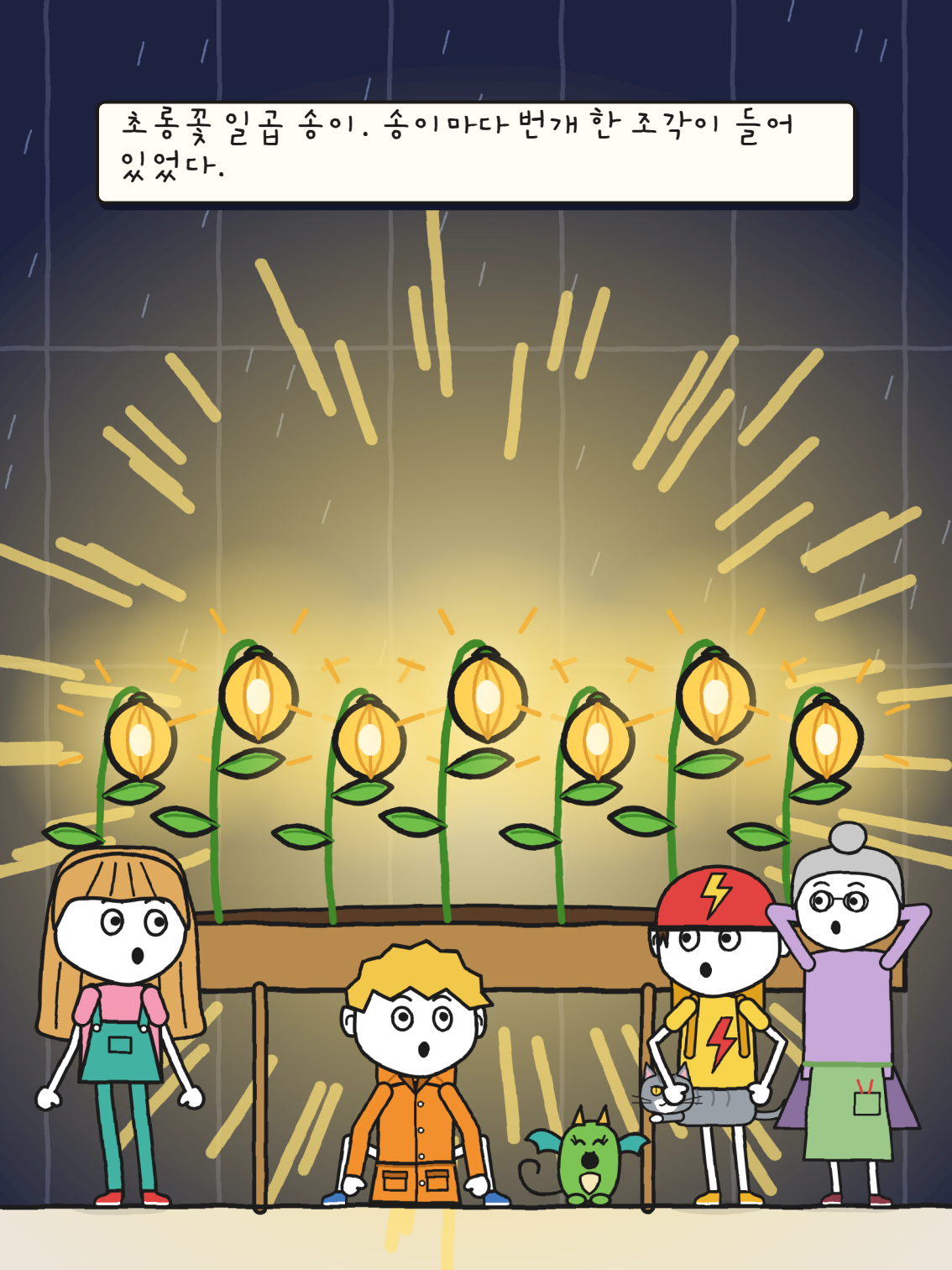


병은 비어 있었다. 흙에는 작은 구멍이 일곱 개 나 있었고, 마지막 구멍에는 아직 작은 다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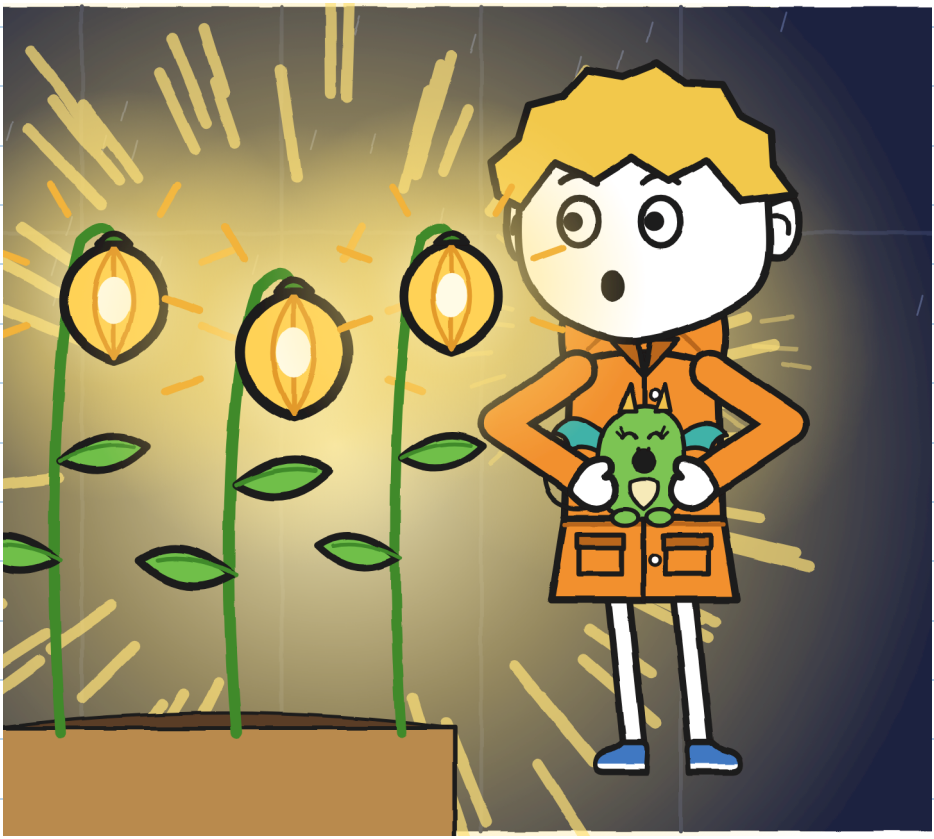
그러고는 한참 아무 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만 흙이 담긴 화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초롱꽃에 불이 켜졌다.

초롱꽃 일곱 송이. 송이마다 번개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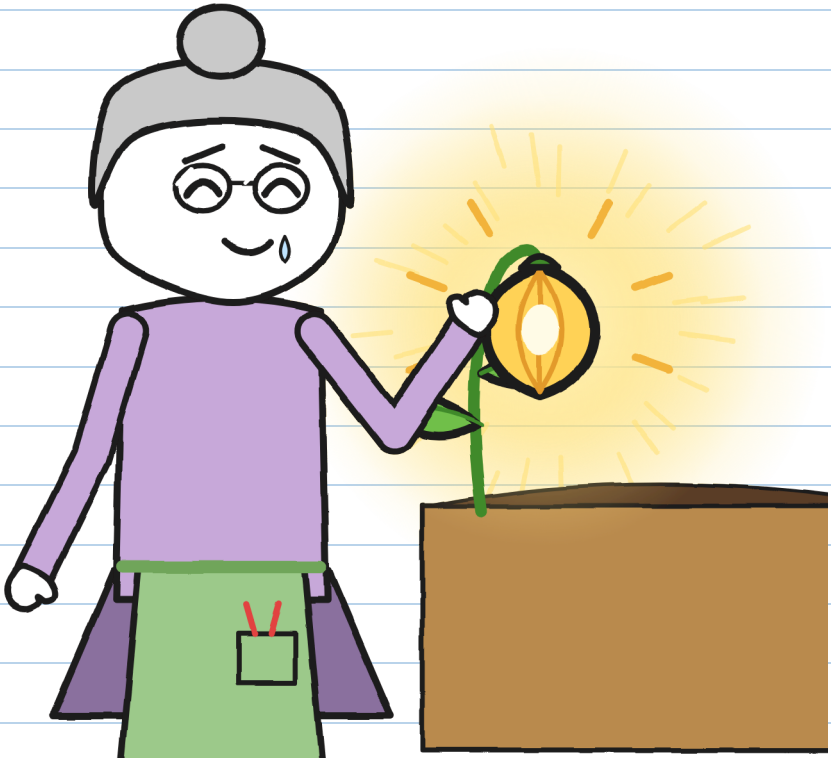


부스러기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나처럼 입을 떡 벌리고 초롱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부스러기가 이제 내 무서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 따라하고 있다는 걸.



플로라 아줌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초롱꽃 하나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다. 오랫동안 기다린 것을 만지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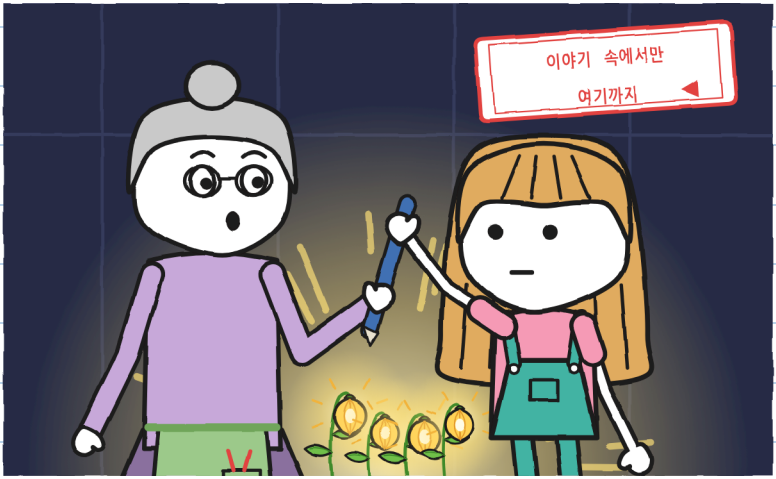
"산책로가 이랬단다." 아줌마가 말했다.



나도 하나를 만져 보았다. 부스러기도. 햇볕을 쬔 돌멩이처럼 미지근하게 따뜻했다.

플로라 아줌마는 크랭크를 돌려 비를 멈추고 서명하려고 볼펜을 꺼냈다.
드디어.
휼리타가 손가락 두 개로 볼펜을 막았다.
"아직이에요."
휼리타는 초롱꽃 일곱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여덟 번째가 남았어요. 제가 병을 너무 일찍 열었어요. 찾아야 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상자에서 라벨을 떼어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배달하려면 끝까지 해야 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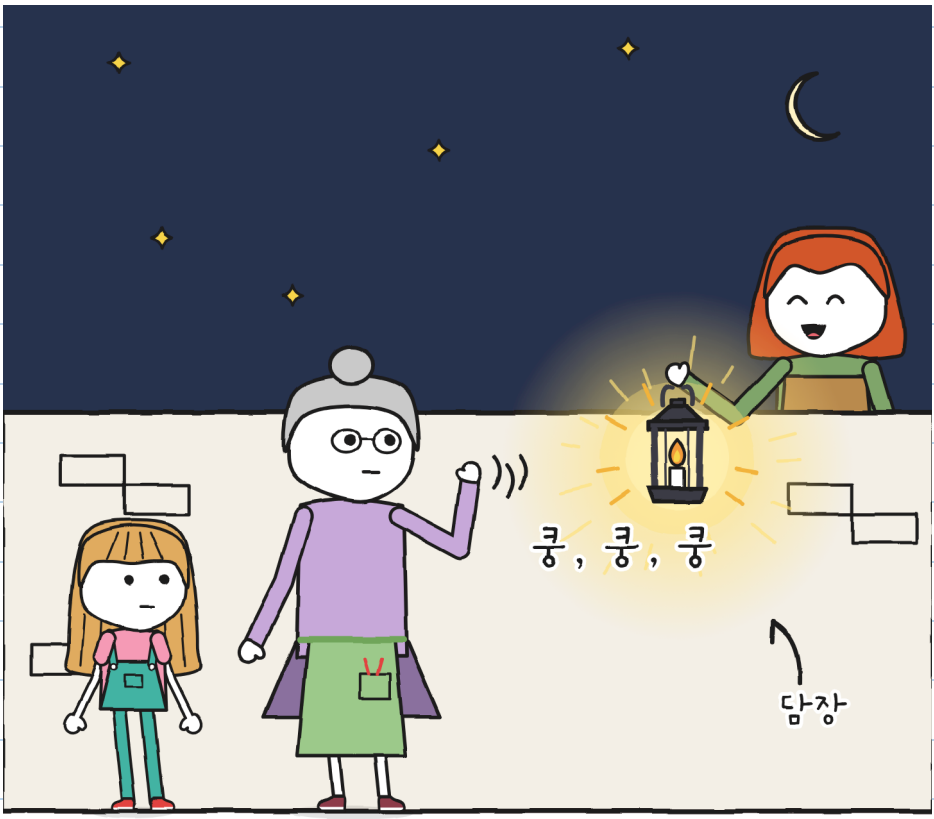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부엌으로 돌아왔다.
"마당은 아직 단혀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아직은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훌리타가 셀 번개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고, 마지막 천둥이 친 뒤로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이제 비는 오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여덟 번째 씨앗은 저 밖 어딘가에 어둠 속에 있었다. 제때 흙을 찾지 못했다면 다시 잠들어 돌멩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플로라 아줌마의 서명이 없으면 해뜰 때 2번 택배는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찾으러 가요." 훌리타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마당 담장을 세 번 두드렸다. 베라 아줌마가 말했던 대로, 그 담장은 용의 집 벽이다.



"이번에는 너희끼리만 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가 말했다.

제6장

여덟 번째

우리는 플로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등불 하나, 자전거 한 대와 함께 나갔다. 휼리타는 빈 병을 들고 라벨을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부스러기를 비옷 안에 넣고 있었다. 부스러기는 내 턱이 있는 곳으로 머리를 쏙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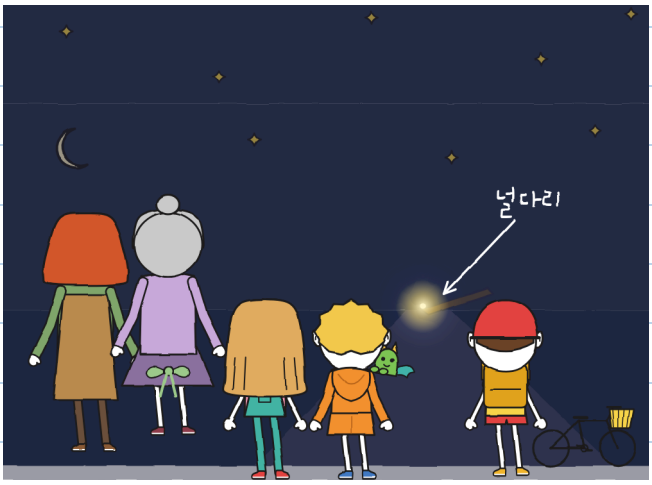
우리는 마당과 좁은 길과 운하 가장자리를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여덟 번째 씨앗이 잠들었다면 저 젖은 돌멩이들 중 아무거나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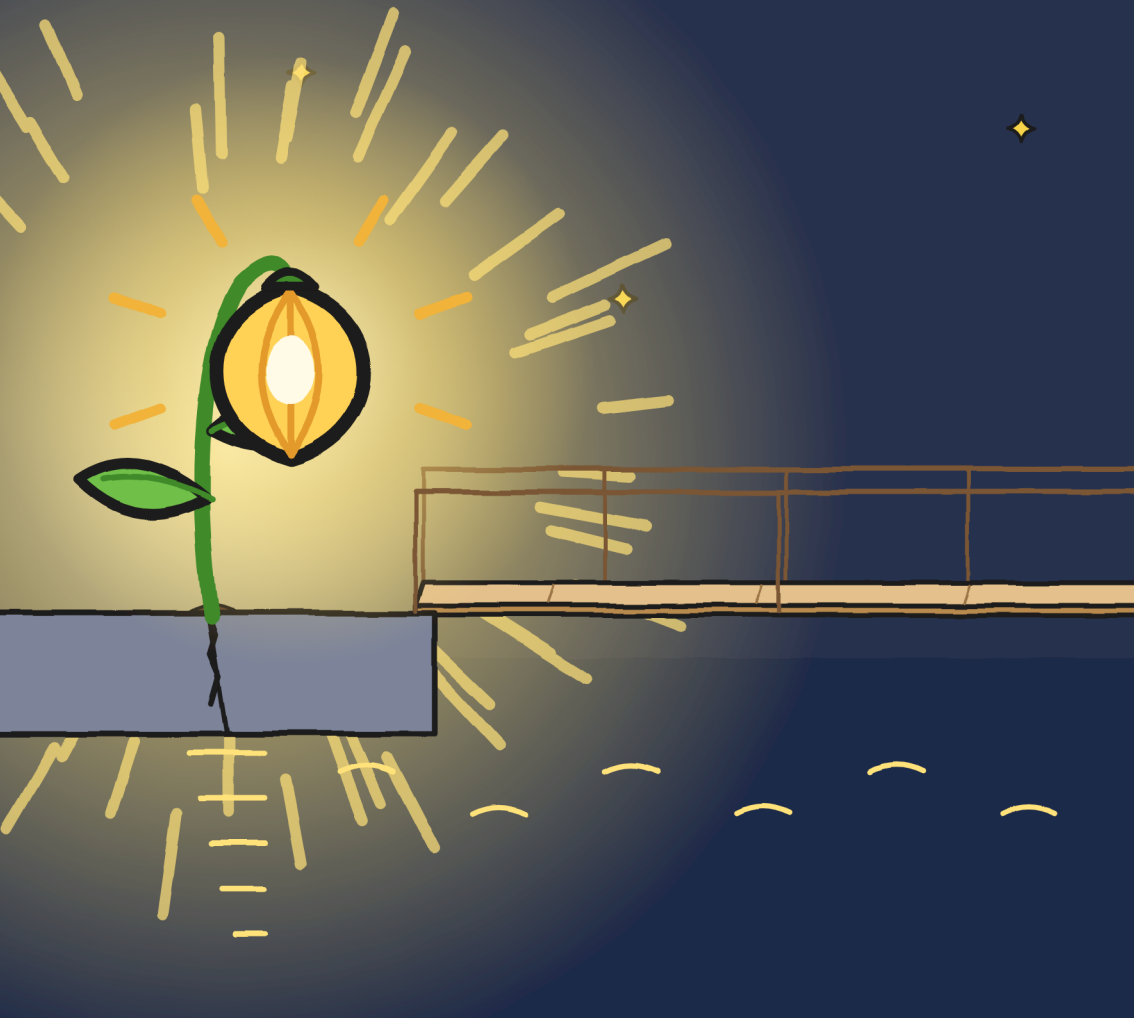
등불이 젖은 돌에 반짝반짝 비쳐서, 그 사이를 들여다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이제 막 싹튼 초롱꽃은 아주 약하게 빛날 것이다. 우리는 작은 불빛 하나를 찾으면서 불빛을 세 개나 켜 놓고 있었고, 그 빛들이 작은 불빛을 삼켜 버리고 있었다.
"잠깐만요. 전부 꺼요."

토노는 자전거를 세웠고, 베라 아줌마는 등불의 불꽃을 낮췄고, 플로라 아줌마는 손전등을 껐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어둠 속, 산책로 끝에 작은 불빛이 나타났다.



널다리 끝자락에.

내 생각에는 빗물이 여덟 번째 씨앗을 좁은 길을 따라 산책로까지 쓸고 갔고, 씨앗은 돌 두 개 사이의 틈에 걸려 젖은 흙 한 줌과 함께 머문 것 같다. 널다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 거기서 씨앗은 혼자 싱어졌다. 멀리서는 작은 불빛. 가까이서는 모든 걸 환하게 비추었다.



훌리타는 한참 동안 널다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있으니 달라 보였다. 더 짧고, 더 넓고, 물보다는 나무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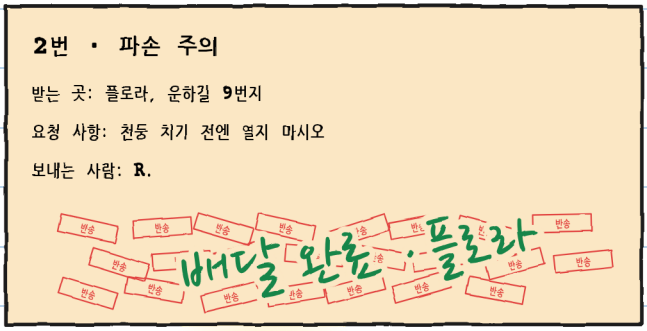
훌리타는 널다리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딱 한 발. 그러고는 다시 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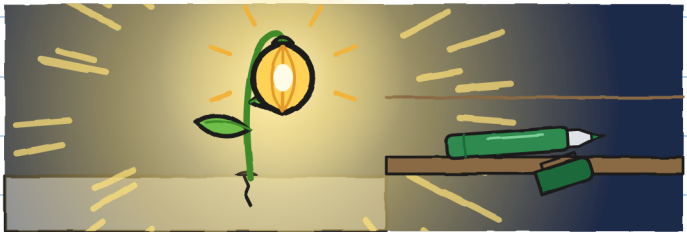


멀리서는 이제 안 무서워. 가까이서도 거의. —J.

"이건 여기 있게 하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자리를 스스로 골랐으니까."

휼리타는 라벨과 초록색 매직펜을 아줌마에게 건넸다. 어떤 잉크가 지워지지 않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플로라 아줌마는 여덟 번째 초롱꽃의 불빛 아래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매직펜을 돌려주었다.





집 앞에서 헤어질 때 플로라 아줌마가 나에게 체를 주었다. "가져가렴. 다음 폭풍 때 쓰렴. 그리고 마라에게 이제 때가 됐다고 전해 주렴."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를 둥지에 두고 우리를 승합차에 태워 가게까지 데려다주었다. 토요의 자전거는 뒤에 실었다. 찻길 다리로 갔다. 밤에는 큰 다리를 들어 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니까. 아줌마는 가게 앞에 우리를 내려 주고 용들에게 돌아갔다.

가게는 깜깜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에 없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 있었다.



"벌써 지나갔어?"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한참 전에요." 훌리타가 말했다.

담요, 귀마개, 그리고 헬멧 대신 쓴 냄비. 스물세 번 배달했지만 폭풍이 칠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뭔지 알았다.
나는 플로라 아줌마의 말을 전했다. 마라 아줌마는 냄비를 눈썹까지 푹 눌러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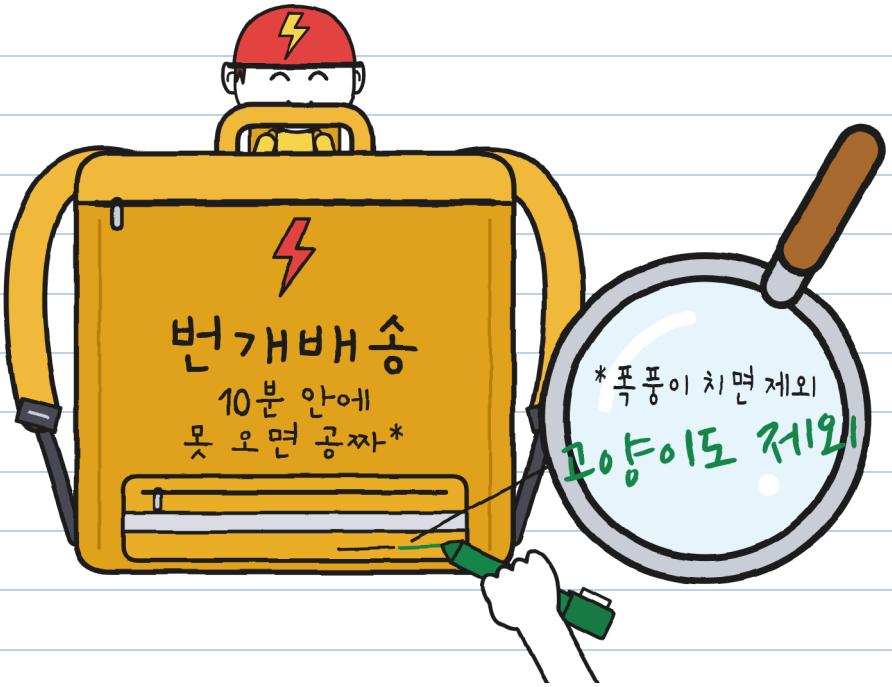
"저도 천둥이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들어 올렸다.



나는 마라 아줌마와 계산대 밑으로 들어갔다. 딱 맞았다.

마라아줌마는 토쇼에게 배달 상자를 뒤집어 의자들 옆에 놓아 주었다.
"네 자리야. 당분간은."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토쇼는 앉아서 훌리타의 매직펜으로 가방의 작은 글씨에 두 단어를 덧붙였다: '고양이도 제외'.



이제 작은 글씨가 진실을 말하네. —J.

내 계획을 고쳤다. 천둥에 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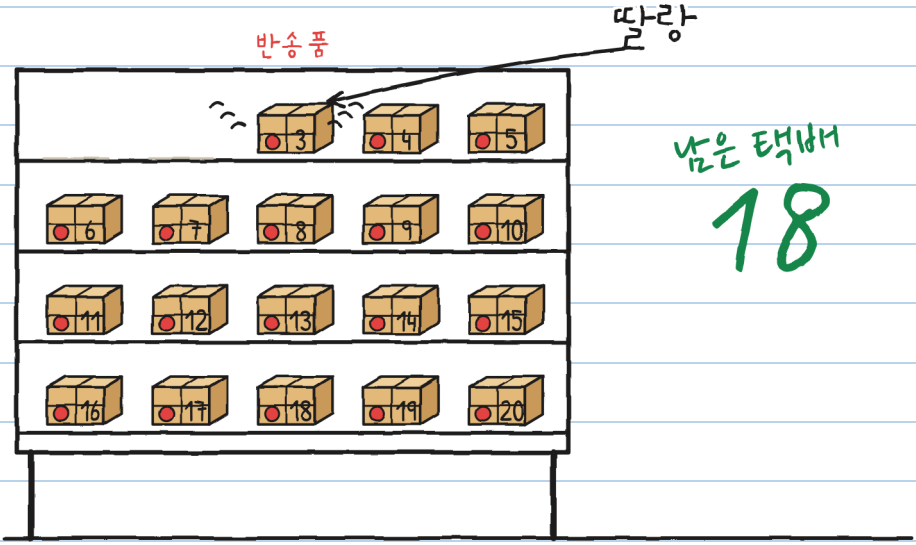
1. 코끼리 세기.
2. 누군가와 함께.
3. 딸꾹질을 해도 괜찮다.

남은 택배

7918



그리고 아무것의 사냥꾼이라고도 하지 마.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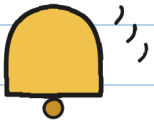


남은 택배
18

그날 밤 집에 가기 전에 돌아온 택배 하나가 딸랑 울렸다.
작은 방울처럼. 3번 택배였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3번**
>
> 우리 토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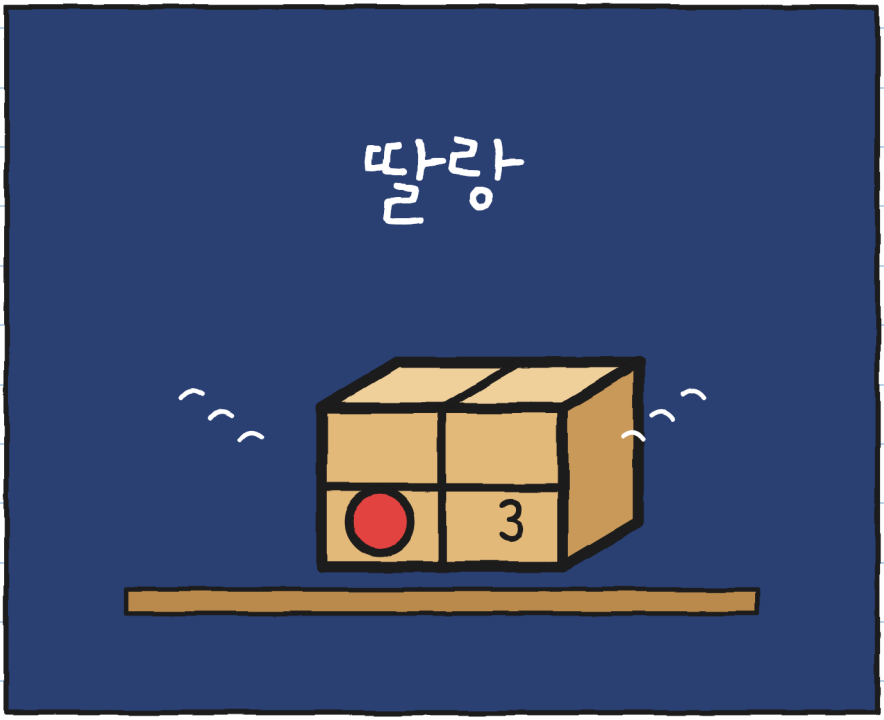


토뇨는 헬멧처럼 빨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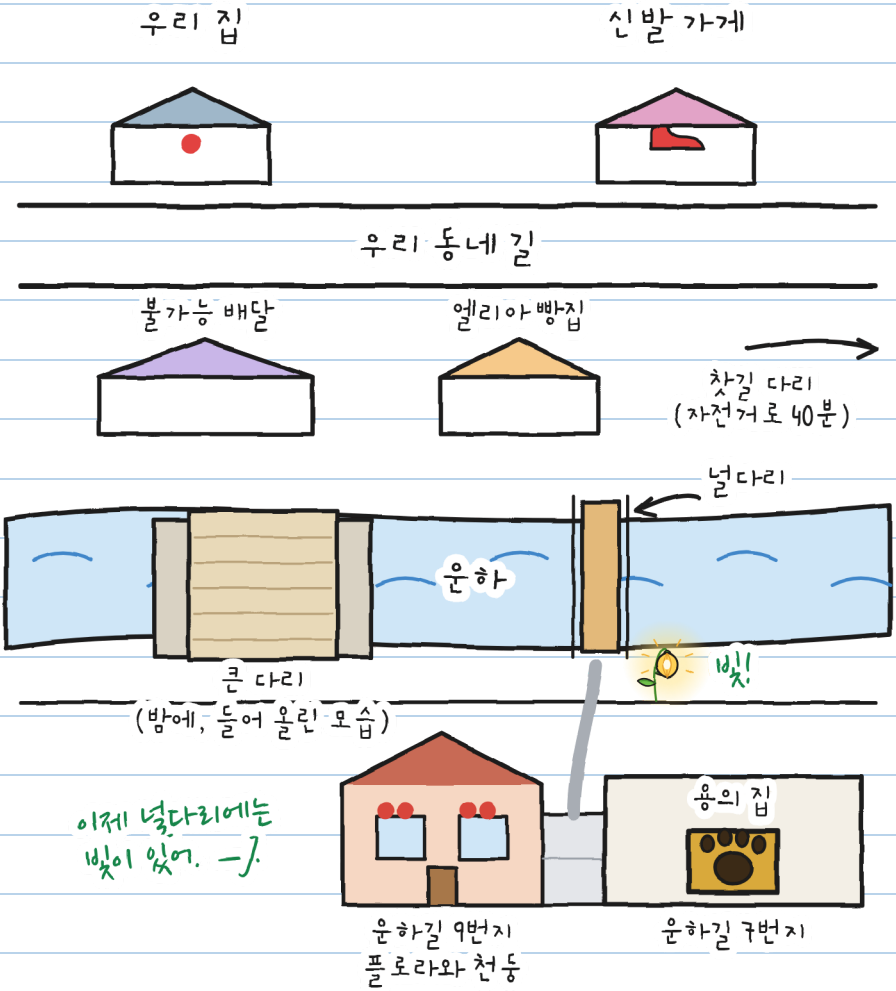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3

(곧 나옵니다)



토끼에게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 —J.

동네 (두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엘리아 빵집
찻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빛!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이제 널다리에는
빛이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나한테는 R.의 카드가 하나 있다. 처음 두 단서는 공책 1권에서 나온 것이다. 새 단서를 적었다:

R.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R.

1. 글씨를 아주 못 쓴다(마라).
2. 베라 아줌마는 R.의 이니셜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다.
3. 오래전에 플로라 아줌마와 초롱꽃을 심었다.
4. 늦게라도 약속은 지킨다.
5. 플로라 아줌마의 마법 유리를 만들었다.

6.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단서야. —J.

너는 어떻게 생각해? R.이 누구일 것 같아?

내 생각에 R.은…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훌리타가 일곱 번째 씨앗을 잡아.

사이즈 XS · A1
바닥에 씨앗이 하나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S · A2
또 번개가 쳤다. 바닥에는 씨앗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M · B1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은 하나만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L · B2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진짜 폭풍이 칠 때 해야 할 일

1.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 번개가 벌써 너에게 닿을 수 있어.
2. 어른과 함께 집 안에 있어. 창문, 문, 유리에서 멀리 떨어져. 온실도, 다리도, 나무도, 물도 안돼.
3.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가지 마.
4. 코끼리를 세면 번개가 가까운 곳에 쳤는지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 하지만 언제 나가도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네 폭풍을 세어 봐

집 안에서: 번개와 천둥 사이에 코끼리를 세어 봐.

번개	코끼리	킬로미터 (3마리에 1)	더 가까울까, 더 멀까?
1	15	5	–
2	9	3	더 가까이